

전남 서부권

목포 고하대로 확장 '속얹이' 풀릴까

주민들 산정농공단지·해안선 낀 우회도로 개설 요구

市 1900억~2800억 투입 막대한 예산 소요에 난색

목포대 최성환씨 분리대 폐지 땀 소통원할 해법 제시



작은 4거리를 통제할 경우 다소 불편하겠지만 2차 형태(혹은 역순)로 돌아서 통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 정도의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현재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도로 개설검토 및 기본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안도 용역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과연 목포시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성기자 yousou@

목포대교 개통과 맞물려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교를 연결하는 '고하대로' 확장을 놓고 목포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시의 고민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기엔 재정자립도 26.4%에 불과한 재정행편상 엄두도 못 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목포시가 제시한 연산 주공 아파트에서 북항 4거리간 기존 폭 35m, 6차선의 도로를 폭 45m, 9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신 해안선과 산정농공단지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해안선을 낀 우회도로 건설에는 약 2800억 원, 산정농공단지 낀 우회도로는 19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시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막대한 실정에서 애먼 '속얹이'만 하고 있는 것. 게다가 시가 제시한 기존 노선 확장 방안도 5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부담이 적지 않다.

현재 고하대로 주변에는 연산 주공 3·4·5단지 1870세대, 현대산업 530세대, 대우에이스빌 119세대, 신안비치 1·2·3차 1890세대, 신안비치 팔레스 1·2차 1012세대 등 총 54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이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목포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성환(53·북항동)씨는 "신호연동 체계구축과 함께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갓길 불법 주차차를 철저히 근절시키면 노선 확장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 고하대로 노선을 9차선 혹은 10차선으로 무조건 확장한다고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포대교는 편도 2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항 광장에 이르면 병목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씨 주장의 뼈대다.

최씨는 또 "굳이 확장을 해야 한다면 중앙분리대를 없애 1차선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통행이 적은 인도를 축소해 추가로 1차선을 확보하면 편도 4차선만으로도 승산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지 매입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녹지 공간을 축소할 필요가 없어 당초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폈다.

이어 "좌회전 금지와 일부 규모가

중소·서민금융 지원을

목포상의 금융촉진 건의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보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도 도탄에 빠져있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제2 금융권 지원에 관계부처의 역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낸 건의문에서 "지역 유일의

제2금융권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SC스탠다드저축은행이 지역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금융 감독기관도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는 최근 열린 '목포지역 금융기관장 초청 상공인과 간담회'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영광보리 명품화 산학연 뭉쳤다

농기센터 등 협력단 결성... 생산·가공·수출 박차

지난 2009년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광군이 보리산학연 협력단을 결성, 보리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리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전반에 걸친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리산학연 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결성했다. 또 지난해 보리 음료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던 (주)샘표식품의 보리 발효음료 개발 중간 보고회와

시제품 시음회도 함께 이뤄졌다.

협력단은 군 농업기술센터 김장욱 소장을 단장으로 ▲보리생산분과(대표 전남대 안성주 교수) ▲보리 소재화 분과(대표 경희대 정대군 교수) ▲보리 가공유통분과(대표 광주보건대학 이미경 교수) 등 3개분과 기술전문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보리 산학연 협력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성



과에 따라 9년간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기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각각 현장 컨설팅을 통해 생산능률, 가공, 유통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품종 선발 ▲새로운 보리 가공

품 개발 ▲보리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등 보리산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한편 전남지역은 영광 5400ha를 비롯해 전국 보리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푸짐하고 맛깔나는 음식 덜어 먹어요

남도 음식문화 개선해야

음식업 전남도회 토론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지회장 정찬기)는 지난 7일 전남도청 박환주 음식문화 담당과 보행양조 유행식 본부장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문화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정책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전제에 관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됐다.

도내에는 한식당 1만3000개를 비롯해 2만5000개소의 식당이

영업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종류의 반찬 식단과 질보다 양만을 생각하는 음식점 및 소비자들로 음식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추진위는 음식점은 물론 공무원과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대회 등을 통해 남도의 푸짐하고 맛깔나는 음식을 덜어먹는 문화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음식업 대표로 참여한 이은옥 위원장은 "음식문화 개선으로 고객과 주인이 동반된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함평군-Kwater-고객 청렴협약체 협약

함평군 환경 상하수도과와 Kwater 함평수도관리단(단장 박순오), 주부교실 함평지부(박순오 회장)는 지난 3일 청렴문화 동반확산을 위해 '함평군-Kwater-고객 청렴협약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청렴문화 의식확산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뿐 아니라 주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각자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 의식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자체와 Kwater, 고객은 함께 청렴·부패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청렴문화 의식의 확산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오 함평수도관리단장은 "청렴 윤리의식 및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협업체 운영으로 청정 함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목포시항 환경콘서트

11일 옥암 수변공원에서

목포 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옥암 수변공원에서 여름밤의 향연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진윤일 지휘자가 이끄는 목포 시립교향악단 80여명의 단원

들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가요, 영화 음악, 드라마 O.S.T 음악을 선사한다.

옥암 수변공원은 옥암동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 정면에서 연산호 제방 수변폭(13만4000㎡)에 조성된 친환경 저류지형 공원이다. 점토포장길 1180m를 비롯해 목재 산책로 1150m를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코스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전북

정읍·김제에 자생 식물원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각각 15억 투입 조성

정읍시와 김제시에 자생 식물원이 조성된다. 8일 정읍시와 김제시에 따르면 산림청이 공모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정읍, 내장산 자생식물원 한자리에 = 정읍시는 내장산에 서식하는 자생식물과 정읍의 역사와 문화, 전설을 접목한 자생식물원을 내장산 조각공원에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15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다. 5.5ha 규모의 식물원에 내장단풍을 주제로 천연기념물 91호인 굴거리나무와 희귀식물인 진노랑 상사화 등 30여종의 내장산 자생식물이 식재될 예정이다.

또 정읍의 내장 단풍을 비롯한 100여종의 세계단풍을 전시하는 '단풍원'과 내장단풍 유전자 분석, 내장산 단풍 종류별 분포현황 등 단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관이 들어선다.

김제, 도심권에 식물원 조성 = 김제시는 저수지와 유희농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시민문화 체육공원에 자생식물원을 조성한다. 도심권 사업장으로는 전국 최초로 유치했다.

시는 2012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자생식물원을 조성한다. 시는 지역의 다양한 꽃나무를 갖춘 화목원과 생약의 우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생명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습지원 등 테마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홍은선기자 parks@

뉴스 브리핑

전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본격 서비스

전주시는 최근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ATMS)을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ATMS는 도로의 교통량, 통행 속도 등 도로교통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수집,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운영자는 이를 분석 가공해 효율

적인 도로교통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ATMS 구축으로 시내 주요도로의 장기적인 교통정체 수습과 함께 시민들의 연료절감뿐만 아니라 자동차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도시 건설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마실길 한눈에 보는 '싸드락' 페너

사단법인 마실길(이사장 김광오)은 전북지역의 마실길을 소개한 '싸드락 싸드락 마실 길'을 발간했다.

이 책은 모악산과 한옥마을, 번산, 고창 질마재, 지리산, 진안 죽도, 섬진강 등 도내 대표적인 마실길 10곳이 담겨있다.

또 전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성지를 잇는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 걷기 코스와 전북발전연구원 선정 전북생태탐방로, 전북 백제기행 등도 실려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소방서 장애인 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와 의용소방대연합회는 8일 요촌동 소재 지체장애인 주택에 화재에 방 소화시설인 간이 스프링클러(sprinkler)를 설치했다.

김제소방서는 화재발생시 인명·재산피해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장애인 독거노인 주택 등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화성 서장은 "가동 불편한 시민들에게 기초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더 많이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6년 연속 청렴기관 선정 고창군 청렴비 제막

지난 2005년부터 6년 연속 청렴 기관으로 선정된 고창군에 청렴비가 건립됐다. 고창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영록)은 지난 4일 군청 출입구에 '청렴한 고창군 행복한 군민'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청렴 조형물을 설치하

고 제막식을 가졌다. 고창군은 부패 척결과 국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05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에서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 수박을 특화한 이색 축제가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모습.

고창 복분자 축제에 오세요

10~12일 풍천장어 함께 즐기는 헬스푸드 페스티벌

"복분자, 수박, 장어의 맛을 한꺼번에 즐기세요."

고창군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헬스푸드(Healthy Food), 우리 몸에 건강을 먹다'라는 주제로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손꼽히는 복분자(覆盆子)와 복분자술, 갯벌 풍천장어, 황토배기 수박을 동시에 즐기는 요리와 함께 체험, 휴식이 가미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프로그램은 ▲파워존(POWER ZONE) ▲푸드존(FOOD ZONE) ▲헬스존(HEALTH ZONE)으로 구분해 특색있게 마련됐다.

'파워존'은 복분자를 상징하는 '요강' 모형 입구와 수박, 복분자, 옥수수 꾸며진 터널을 통과하면 특산물 맛과 볼거리를 경험하게 된다. 복분

자 팔찌 만들기, 수박 부채 만들기, 수박 찹도 쓰고 물대포 쏘기, 장어 잡기 등의 이색체험도 진행된다.

'푸드존'에서는 전문 요리사가 복분자, 장어, 수박을 재료로 철관요리와 스타면,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대형 유람선 배에서 정식요리와 음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헬스존'에는 바깥개비 포토존, 3D 포토존이 마련돼 추억을 담고 드림통으로 제작된 푸드얼차를 탈 수 있다.

이밖에도 복분자 설화로 꾸며진 마당극, 배짱이 공연단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특산물 판매전시장에 축제 기간 운영되며 인근 고인돌공원 옆에 옥수수 관광단지(28ha)도 준비된다. 복분자 명칭에 얽힌 설화도 재미있다. 옛날 선운사에 살던 노부부가 뒤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너무 병약해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

던 스님이 산속의 검은 딸기를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말을 하자 노부부가 검은 딸기를 따서 먹었다니 놀랍게도 아이가 건강이 넘쳐 소변을 볼 때마다 요강이 튀어났다고 해서 이름붙여졌다고 전해진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복분자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현재 1500억 시장에서 향후 3000억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현재 ▲복분자 재배 농가수 4969호 ▲가공업체 56개소 ▲생산면적 1211ha ▲소득창출 1500억 원 등 전국 복분자산업 비중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오는 2014년까지 664억원을 투자해 복분자와 복분자 관련산업을 집적화시켜 식품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공사장서 발견된

검은머리물떼새 알

인공부화 성공

군산시 철새조망대가 자연상태에서 어미가 번식을 포기한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의 알을 인공부화하는 데 성공했다.

8일 군산시 철새조망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군산자유무역지역내의 공단지역에서 번식해 화제가 됐던 검은머리물떼새의 동지에서 어미가 번식을 포기한 알 2개를 수거해 인공부화를 시도한 끝에 새끼 2마리를 부화시켰다.

이로써 지난날 동지에서 발견된 검은머리물떼새의 알 4개 모두가 번식에 성공했다. 앞서 알 2개는 어미에 의해 자연 번식이 된 바 있다.

철새조망대는 거위들이 알을 인공 부화기에서 성공적으로 부화시켰고, 이후 사료를 일일이 물에 풀어 넣어 주는 방식으로 인공 먹이주기를 실시했다. 현재 인공으로 부화한 새끼 두마리의 건강은 양호하다.

철새조망대 관계자는 "지난달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검은머리물떼새가 어수선한 주위 환경요인으로 번식을 서둘러 마친 것 같다"면서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을 성공적으로 번식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